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월요기도모임 기도제목(2022.7.4)

1. 북한 정치범 수용에 갇힌 10 만여 명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 이상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몇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의 기도부탁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에 갇혀 있는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풀려나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9 편 11-13 절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 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훼방한 그 훼방을 저희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북한의 갇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갇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하루 속히 자유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훼파한 북한 정권의 악행이 중지되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에 갇힌 10 만여 명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저들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더 이상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2. 북한의 7 차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의 불의하고 사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온전히 무력화되게 하소서!

최근 북한이 7 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완료했지만, 현장에서 기술 전문 부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주기 위해 핵실험장 주변에서 불필요한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에 최종적으로 핵 물질 설치와 갱도 밀봉 작업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게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7 차 핵실험이 무산되고 북한 핵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 지기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당신의 손을 펴서 치료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함께 모여 있던 장소가 흔들렸고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4 장 29-31 절 말씀과 같이 북한 정권이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더하여 피흘림과 죽음을 불러올 참상을 예비하며 풍계리 지하를 핵실험으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저들의 불의하고 사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온전히 무력화되게 하옵시며, 정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지하 성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모이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들이 북한 전역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사 풍계리는 물론 북한 전역이 생명으로 충만한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